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5

청소년·청년의 첫 금융생활

첫 계약과 첫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만들고, 거절해야 할 요구를 알아본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나이와 계약 종류에 따른 동의·확인 사항을 찾는다.
- 급여명세서·플랫폼 정산·학자금·통신·구독 계약을 읽는다.
- 첫 신용카드·할부·후불결제가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 계좌·신분증·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친구·고용주·광고를 거절하고 신고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첫 금융생활의 작은 약속이 앞으로의 선택 범위를 만듭니다

처음 만든 계좌·카드·휴대전화 계약과 첫 급여 기록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납부일을 놓치면 돈뿐 아니라 신용과 개인정보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계약·급여·후불·신용의 기본을 먼저 익힌 뒤 첫 금융상품과 일자리 사례를 판단합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첫 급여
- 명의와 계정
- 앞으로의 신용
- 근로조건과 임금 기록
- 또래 압력에서 벗어날 선택권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명의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근로계약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후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신용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개인정보와 인증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청소년을 미숙한 소비자로 낙인찍지 않고 첫 계약에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 신용을 인성평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급여·가정형편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명의대여·고수익 일자리 징후는 EDU-01과 연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명의

계좌·휴대전화·계약의 주인으로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 생활 예: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의 거래 책임과 확인 절차가 나에게 연결됩니다.
- 반대 예: 친구가 쓰더라도 내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명의는 권리와 책임을 연결하므로 통장·카드·유심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이해확인: 사용할 사람이 친구면 내 명의를 빌려줘도 되나요?

도달 기준: 안 됩니다. 범죄와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무슨 일을 얼마 동안 하고 임금·시간·휴일을 어떻게 정할지 적은 약속입니다.

- 생활 예: 시급·근로시간·급여일을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반대 예: 사장과 친하면 말로 정한 조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근로계약과 임금기록은 급여를 확인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근거입니다.
- 이해확인: 급여가 입금되면 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도달 기준: 필요합니다. 시간·임금·업무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후불

지금 사용하고 미래의 소득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 생활 예: 신용카드·후불결제의 다음 결제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 반대 예: 한도가 남아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후불은 미래 현금흐름을 줄이는 빚이므로 사용일보다 상환일을 봅니다.
- 이해확인: 결제 한도는 내 저축과 같은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용

약속한 돈을 갚고 계약을 지킬 가능성에 관한 기록과 판단입니다.

- 생활 예: 대출·카드 납부 기록이 쌓입니다.
- 반대 예: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을 점수로 매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이력과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오류가 있으면 확인·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확인: 신용점수가 낮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금융거래 정보에 따른 평가이며 사람의 가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인증

나를 식별하고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 생활 예: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공식 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
- 반대 예: 아르바이트 지원이면 통장 비밀번호까지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첫 일자리·대출·계좌 사기는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요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해확인: 급여 지급에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도달 기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다른 정보입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근로계약과 급여

도입 질문: 월급은 어떤 약속에서 생길까요?

근로계약은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하고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두로 들은 금액과 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액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시간을 읽습니다.
- 판단 순서 2: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실제 입금액과 근무기록을 대조합니다.
- 시범 사례: 월 250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어도 세전인지 세후인지, 고정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맞으면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채용 공고의 월급과 입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볼까요?

도달 기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지급·공제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2. 세전·세후와 공제

도입 질문: 월급에서 왜 돈이 빠질까요?

세전 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공제 뒤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공제는 모두 같은 이름과 비율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광고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보다 실제 입금액과 비정기 지급·공제를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지급총액과 기본급·수당을 나눕니다.
- 판단 순서 2: 세금·보험료 등 공제명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실수령액을 월 예산의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 시범 사례: 연봉 3천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25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기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공제액은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돈이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항목별 근거와 계산을 확인합니다.
- 확인 질문: 생활비 예산은 세전 월급으로 잡아도 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실제 입금되는 세후 금액과 변동 가능한 수당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3. 후불결제와 첫 신용

도입 질문: 지금 안 내는 돈은 공짜일까요?

신용카드·후불결제는 결제 시점과 돈을 갚는 시점이 다른 신용거래입니다. 사용액은 미래 소득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됩니다.

소액을 여러 번 쓰면 총액이 보이지 않기 쉬우므로 결제일과 누적 사용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결제일과 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사용 즉시 예산에서 차감해 기록합니다.
- 판단 순서 3: 할부·리볼빙 등 추가 비용과 상환기간을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이번 달 후불결제 5만원을 네 번 쓰면 다음 달에는 2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각각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카드한도는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허용한 최대 신용액일 뿐입니다.
- 확인 질문: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이면 이번 달 지출이 아닌가요?

도달 기준: 이번 달에 소비한 금액이며 다음 달 현금흐름에 상환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4. 취업·부업을 이용한 금융사기

도입 질문: 일을 시작하는데 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정상적인 급여 지급에는 본인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통장·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자체를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자는 고액 부업, 거래대금 전달, 세금 절감 등을 내세워 계좌와 명의를 이용하고 피해금 이동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 판단 순서 1: 회사명·사업자·업무내용을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2: 선입금·대출·계좌 양도 요구를 거절합니다.
- 판단 순서 3: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알립니다.
- 시범 사례: 구매대행 업무라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죄자금 이동일 수 있으므로 중단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수수료만 받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법적·금융상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회사가 보안 때문에 체크카드를 말기라고 하면 넘겨도 될까요?

도달 기준: 안 됩니다.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기지 말고 회사와 업무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친구의 통장 대여 부탁

친구가 잠깐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 결정: 명의와 접근수단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정보: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위험: 범죄수익 이동이나 채무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행동: 거절하고 이미 넘겼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상담합니다.
- 기록: 대화와 전달 여부를 보존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취업·고수익 부업은 출국·계좌 제공 전에 검증합니다

고수익·항공권 제공을 내세운 구인이 감금, 불법 콜센터, 자금세탁·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여권·휴대전화·통장·인증수단을 고용주에게 맡기거나, 업무라며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회사 실체, 근로계약, 취업비자, 근무지와 업무를 정부·재외공관 등 독립된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의심되면 출국·송금을 멈추고 경찰에 상담하며, 해외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재외공관과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식 근거: 경찰청 ·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 주의 · 검토 2026-08-24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51111095947567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통장과 신분증

고용주가 급여 등록이라며 통장과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 추가정보: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친구의 계정 대여

친구가 게임 거래에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 추가정보: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가능액 전부를 생활비로 받으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 추가정보: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플랫폼 수입

정산액이 매출과 달라 생활비가 모자랐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 추가정보: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뺀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첫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여러 카드를 만들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 추가정보: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 기록을 본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소액 결제는 신용에 영향이 없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것은 사적인 일이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앱 약관은 읽지 않아도 모두 같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청소년·청년의 첫 금융생활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계약 상대와 공식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통장과 신분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필요 정보와 제출 방식을 공식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원본·비밀번호는 넘기지 않는다.

A.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B. 이 선택은 '첫 직장이므로 모두 맡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C. 이 선택은 '메신저로 비밀번호까지 보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와 거래 권한을 구분한다. 급여계좌 확인이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

7. 사례 '친구의 계정 대여'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거절하고 이미 제공했다면 금융회사·경찰에 즉시 알린다.

A.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B. 이 선택은 '친구이므로 하루만 빌려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C. 이 선택은 '수수료를 받고 빌려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계좌와 인증정보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타인 거래에 쓰이면 지급정지·수사·피해 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8. 사례 '학자금과 생활비'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학업 기간·상환 시작·월 부담·대체 지원을 비교해 필요한 만큼만 결정한다.

- A.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B. 이 선택은 '가능한 한도를 모두 받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C. 이 선택은 '상환은 취업 후 생각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와 필요액은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조건과 상환방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9. 사례 '플랫폼 수입'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매출·수수료·환불·세금 뉘과 정산일을 나눠 기록한다.

- A.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 B. 이 선택은 '매출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 C. 이 선택은 '부족액을 후불결제로 채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정산 전 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구분한다. 통신·구독 청구일까지 같은 달 현금흐름에 넣는다.

10. 사례 '첫 신용카드'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월 상환한도와 결제일을 정하고 한 장부터 사용기록을 본다.

- A.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 B. 이 선택은 '혜택별로 카드를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 C. 이 선택은 '리볼빙을 자동 선택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혜택보다 전액 상환 가능성을 먼저 본다. 리볼빙·할부·후불은 다음 달 가용소득을 줄인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점검 대상	질문	기록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나이와 계약 종류에 따른 동의·확인 사항을 찾는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급여명세서·플랫폼 정산·학자금·통신·구독 계약을 읽는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첫 신용카드·할부·후불결제가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계좌·신분증·인증정보를 요구하는 친구·고용주·광고를 거절하고 신고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02 계좌·결제
- EDU-04 신용·대출
- EDU-07 직장·자영업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임금 안내 · <https://www.moel.go.kr/>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 <https://www.kosaf.go.kr/>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 · <https://ecrm.police.go.kr/>